

구 아바나를 중심으로 본 도시 격자와 거리체계 변화*

장 수 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수환(2020), 「구 아바나를 중심으로 본 도시 격자와 거리체계 변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1(1), 115-141.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식민시대 아바나의 도시형성과 성장에 대해 격자와 거리의 변천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도시연구는 그 형성과 발달의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아바나의 격자와 거리라는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존 라틴아메리카 도시연구와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바나의 옛 중심지인 구 아바나(Habana Vieja)를 중심으로 격자 및 거리체계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구 아바나의 격자 변천 과정은 기존 격자의 합병과 분할, 그리고 아바나 만 인근의 확장 및 공공 공간의 출현으로 나눌 수 있다. 거리체계의 경우 연구대상 지역은 구 아바나와 18세기 이후 도시 방벽 외부로 확장된 주요 도로를 포함하였다. 구 아바나의 주요 거리체계인 까예(calle)와 도시가 형성된 지 200년이 지나 등장한 아바나 만의 공공 산책로, 그리고 당시 도시 경계였던 방벽을 넘어 새롭게 조성된 알라메다(alameda), 아베니다(avenida), 칼사다(calzada), 빠세오(paseo) 등의 거리 변화를 알아보았다. 수백 년 동안 겹겹이 형성된 도시의 물리적 형태가 현재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아바나의 사례는 도시의 화석이 될 수 있는 도시구조에 대한 고민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핵심어 인디아스 법, 구 아바나, 도시 형태, 격자, 거리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6A3A02058027)

I. 서론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도시의 물리적 구조는 역사상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변화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식민시대 아바나의 도시 변화 과정에 대하여 도시 형태 연구에서 주요주제인 격자(manzana, grid)와 거리(streets)체계에 대한 접근을 통해 알아보았다. 과거 역사를 통해 형성된 도시 형태 연구는 물리적 공간연구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문 및 사회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르페브르의 지적대로 특정 공간에서의 행위는 공간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공간은 그 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Lefebvre, H. 1991, 143).

스페인인 국토회복운동(Reconquista, 718~1492년) 시기에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되찾은 정착지에 로마식 그리드(grid)를 적용한다. 이후 아메리카로 진출한 스페인은 식민 정착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이 격자를 적용했다. 1496년 스페인은 카나리 제도(Canary Islands)의 산 크리스토팔 데 라 라구나(San Cristóbal de La Laguna)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 식민도시에 격자를 도입해나갔다.

본 연구에서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옛 중심지인 구 아바나(Habana Vieja)를 중심으로 격자 및 거리체계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백 년의 고도에서 도시의 물리적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변화를 이끄는 동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과거 도시의 거리와 격자 연구를 통해 향후 도시의 물리적 공간계획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도시의 격자와 거리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아바나의 물리적 기반과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중세와 르네상스 도시로서의 특성과 가톨릭 전파의 교두보이면서 이슬람 양식의 혼합, 그리고 좁은 거리와 대비되는 공공 공간의 등장과 도시 확장에 대해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구 아바나 격자망과 거리체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1691년에서 지금의 도시 격자를 갖춘 1853년까지의 구 아바나 격자 변천을 알아보았다.

또한 까예(calle) 및 아바나 만에 조성된 처음의 공공 산책로와 도시 방벽(Muralla de la Habana)을 넘어서 들어선 알라메다(alameda), 아베니다(avenida), 깔사다(calzada), 빠세오(paseo) 등의 거리체계 변화를 알아보았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하였다.

2. 연구대상

1) 연구지역

아바나는 스페인의 도시계획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조밀하고 균일하며 연속적인 공간 패턴이 특징이다. 로마식 그리드에 기반한 스페인-아메리카식 격자(Spanish American grid)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자 위에 낮은 건물이 들어서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격자의 경우 구 아바나의 도시 방벽 내 214ha (2.14km²)의 구 중심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거리체계의 경우 도시 방벽 내 거리체계와 18세기 이후 방벽 외부로 확장된 주요 도로를 포함한다.

2) 연구대상의 기간

식민시대 아바나의 격자와 거리체계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격자의 경우 1691년에서 1853년까지의 격자 변천을 알아보았고, 거리의 경우 1500년대 초반에서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의 거리 변화를 살펴보았다.

II. 도시의 격자와 거리체계

1. 아바나 격자와 거리 특성

1573년에 스페인이 공포한 인디아스 법(Leyes de Indias, 1573년)과 아바나 총독이었던 알론소 데 까세레스(Alonso de Cáceres)가 도시의 운영을 위해 만든 법령(Cáceres Ordinances, 1574년)은 현재의 구 아바나 격자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구 아바나의 요새, 수도원, 성당과 저택은 유럽에서 온 군 관련 엔지니어와 목수들이 지었다. 좁고 그늘진 거리에 격자망의 갇춘 밀집된 공간에서 그나마 작은 규모의 공원들이 다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곳곳에 분포하

였다. 1603년 크리스토팔 데 로다(Cristóbal de Roda)는 도시를 봉쇄하는 벽이 쳐진 첫 도시 윤곽을 계획하였다(Julio César Pérez Hernández 2011, 94).

1519년 도시가 세워진 후 5백 년 동안 아바나는 많은 변화를 겪는다. 아바나의 도시발달을 쿠바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식민시기, 의사공화국 시기, 혁명 시기, 특별시기의 네 단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 식민시기(1514~1898년): 스페인에 의해 지어진 도시로 방어적 입지를 건설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 의사공화국 시기(pseudo-republican, 1898~1959년): 미국 투자의 유입으로 급속하게 도시가 성장했다.
- 혁명 시기(1959~1989년):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도인 아바나에 대한 투자는 현저히 감소했다.
- 특별시기(Special Period, 1990~현재):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데 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아바나의 계획 및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James Warren 2015, 134; Colantonio and Potter 2006 재인용).

스페인은 아메리카를 식민화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정복과 식민화(colonization)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점령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한편, 그 지역의 식민화를 위해 새로운 정주체계를 확립해 나갔고 스페인 제국의 교점(node)으로서 도시들을 연결해나갔다.

도시는 식민통치, 교역, 복음 전도라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였다. 첫째, 식민통치의 중심으로서 도시는 본국 스페인 마드리드로부터 시작되는 위계적 연결망을 따라 식민통치를 연결하는 수단이었다. 둘째, 교역지로서의 도시는 지역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시장으로서 공간이었다. 특히 아바나는 구대륙과 신대륙을 잇는 주요무역항이었다. 마지막으로 식민도시는 기독교적 신념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으며, 교회는 황제 권력의 확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민도시의 주요 기능은 광장(plaza)과 그 주위 도시 중심에 집중되었다. 행정적, 상업적, 그리고 종교적 권력은 광장에 위치하거나 그에 매우 근접한 곳에

입지하였다. 스페인 정복자들의 도시 건설 목적은 ‘도시’라는 도구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영역의 확장과 관리, 교역과 종교 전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스페인은 무슬림으로부터 이베리안 반도의 영토를 재정복하는데 이용했던 동일한 체계를 아메리카 도시에 적용하였다(Kenneth N. Clark *et al.* 1995, 112). 스페인은 아메리카를 점령해 가면서 아바나뿐만 아니라 식민지 다른 도시 건설에서도 적용할 도시 관련 법령을 만들었다. 격자망을 가진 레이아웃, 광장과 성당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는 스페인이 점령했던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특징이다.

아바나의 역사지구(Centro Histórico)에 포함된 구 아바나는 거리의 교점에 서 네 개의 방향으로 길이 연결되는 특징을 가진다. 페루의 리마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스페인 식민지였던 라틴아메리카 다른 도시에서도 이 특징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도시 특징은 스페인 본국의 도시에서도 볼 수 있다. 스페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격자망 도시는 바르셀로나이다. 1800년대 급속하게 바르셀로나 인구가 증가하자 기존의 도시구역에서 벗어나 도시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확장지구(Eixample)의 격자 크기는 $113.3\text{m} \times 113.3\text{m}$ 로 되어 있다(Alessandra Currel, Helena Coch Roura 2011, 237). 흥미로운 것은 아바나 격자의 골격이 형성된 1600년대에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들은 아바나 격자망처럼 규칙성을 갖추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아바나 격자망에서 거리의 교점은 네 개의 방향으로 뻗은 길이 있지만, 그 당시 스페인 안달루시아(Andalucía) 지역의 대표 도시이면서 아메리카와 밀접한 무역 관계에 있었던 세비야(Sevilla)와 까디스(Cádiz)의 구도심 거리의 교점은 주로 세 개의 방향으로 뻗어있다. 스페인에서 좀 더 규칙적인 격자망 모습은 1800년대 바르셀로나에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아바나 도시의 주요 특징인 격자는 도시 형태 중 블록의 유형이다. 도시의 블록들은 조밀하게 서로 공존하고 있으며 도시 형성과정에서 물리적 관계와 변화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블록은 도시 형태(urban morphology)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2. 도시 형태 선행 연구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연구하는 도시 형태학(urban morphology)에서는 블록(blocks), 거리, 필지(plots), 건물과 공원 등의 물리적 공간 요소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블록은 도시 공간의 물리적 기본적인 단위이다. 블록은 거리로 둘러싸인 필지의 집합이다. 이는 도시의 네트워크나 건물 유형에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요 연구대상은 블록에 위치한 건물의 점유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점유율(occupation level), 필지(plot)의 면적과 빌딩의 면적 사이의 비율을 뜻하는 밀도(density), 블록 안에 있는 건물의 수, 블록 내 건물의 평균 층수 등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구조에 영향을 준 주요 요소로 경제·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블록의 면적 등도 포함한다(Azizi and Arasteh 2011, 5-15).

사례연구로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이용하여 역사를 거치면서 사회적 이념의 변화가 미친 공간설계 패러다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Julienne Hanson 2000, 97-122). 공간구문론은 도시나 건물로부터 공통의 설계 패러다임을 추출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도시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졌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열섬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도시 격자(urban grids)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멘도사(Mendoza)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María Belén Sosa *et al.* 2017, 547-556). 서울의 근대적 가로환경 연구에서는 식민시기였던 1912년 이후 시행된 시구 개정사업과 1914년 행정구역재편에 따라 종로의 구조적 특성, 명칭, 교통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하였다(이연경 2014, 9-10).

Ⅲ. 아바나의 특성

1. 물리적 기반

1492년 까스띠야 왕조(Kingdom of Castile)의 이사벨 1세(Isabel I)는 이슬람 세력을 피해 인도로의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콜럼

(Cristóbal Colón)의 서인도(아메리카) 탐험을 후원한다. 콜론의 탐험이 가져온 결과는 새로운 식민지 건설과 스페인 본국으로의 엄청난 자원의 이동이었다. 스페인은 수백 년의 식민 통치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곳곳에 그들이 계획한 도시를 남겼다.

아바나는 1519년 식민도시 시작부터 1898년 독립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 영향을 받는다. 스페인은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인디아스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새로이 개척한 식민지에서의 행정은 물론이고 도시의 기반, 건축,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Felipe II, 재위기간 1556년~1598년)가 편찬한 인디아스 법에서는 도시 건설에서 적용할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중앙광장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광장은 모퉁이로부터 달리는 8개의 주요 거리가 있도록 규정되었다. 인디아스 법에 따라 수백 개의 격자망 도시가 라틴아메리카에 만들어졌다.

아바나가 중세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세도시에서 보이는 비정형 설계보다는 좀 더 정형된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도시 요새와 방벽, 밀집한 격자 패턴의 도시배열, 좁은 도로는 아바나에서 중세도시의 일면을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중세후기 유럽에서 상업과 교역의 발달은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에도 영향을 주었다. 식민도시로서의 아바나는 이러한 중세후기 교역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세도시 공간구조의 중심인 성당과 광장을 주요 요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중세도시의 중심인 성당은 전면 광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광장에는 일찍이 시장이 형성되었고,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이는 아바나의 산 프란치스코 아시시 성당에 들어선 광장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아바나는 중세도시와 마찬가지로 교구로 분할된 도시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아바나는 이러한 중세도시의 특성과 더불어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 모습도 보인다. 중세에 이은 르네상스 시대는 식민지 개척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 시기 교역을 위한 도시망을 확장해나갔고 그 당시 발명된 대포와 화약으로부터 방

어하기 위한 도시를 구축해갔다. 이러한 르네상스 시대 도시 특징은 아바나의 요새에도 반영되었다. 르네상스 시기에 광장 주변의 건물은 테라스와 회랑식 건물로 한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아바나의 성당 광장(Plaza de la Catedral)의 회랑식 건물과 구 광장(Plaza Vieja)을 둘러싼 테라스와 회랑식 건물에서 찾을 수 있다.

아바나 도시 성장과 변화에는 스페인 왕실의 식민지 지배정책, 구대륙과의 무역, 스페인과 유럽 다른 국가 간의 정치적 긴장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김희순 2016, 114). 특히 식민지 무역로의 교두보이자 유럽 다른 식민세력과 정치적 긴장과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7년 전쟁(1756~1763)의 후반인 1762년 11,000명의 군인을 태운 50여 척 이상의 영국 함대가 아바나의 동부로 입항하여, 아바나에 거주하면서 북미 및 다른 카리브해 식민지들과 무역을 장악하기도 했었다. 아바나를 잠정적으로 점령했던 영국 해군이 물러난 후 뒤이은 아바나 도시계획은 새로운 수요에 따라 군사적 고려를 하면서 계획되었다.

2. 종교적 혼합색채

디에고 벨라스게스(Diego Velázquez)는 1514년경 약 오백 명의 스페인 군인들과 함께 쿠바의 서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여섯 개의 마을(villas)을 건설한다. 산 살바도르 데 바야모 이 산끄띠 스페리투스(San Salvador de Bayamo y Sancti Spíritus, 1513), 트리니다드(Trinidad, 1514), 산타 마리아 델 뿌에르토 델 프린시페(Santa Maria del Puerto del Principe, 1514~1515), 마야베게(Mayabeque)의 산 크리스토팔 데 라 아바나(San Cristóbal de la Habana, 1515),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 1515)를 만든다. 정주지 이름은 정주지를 만든 사람의 가톨릭 신앙을 따라서 종종 신위(deities)와 종교적인 부칭(patronymics)으로 지었다.

도시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성당과 광장이었다. 17세기에 이미 아바나의 대표적인 광장인 아르마스 광장(Plaza de Armas), 성당 광장, 구 광장, 산 프

란시스코 광장(Plaza de San Francisco)이 만들어졌고, 작은 광장들이 잇따라 나타나 도시의 다중심적인 특징을 이루었다. 1656년 쿠바에 들어온 예수회는 1727년 지금의 아바나 성당 자리에 학교와 교회를 위한 땅을 얻는다. 이러한 기독교적 요소가 아바나에 주요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적인 요소들도 도시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스페인은 식민지 도시 건설을 위해 스페인의 남부 지역에서 벽돌공을 비롯한 기술자들을 쿠바 등 아메리카 식민지로 데려왔다. 스페인 남부 지역인 안달루시아 지방(Andalusia)은 711년 이슬람 세력에 넘어간 이후 1492년 다시 스페인 국토회복이 되기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슬람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남아 있던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스페인의 다른 지역보다 이슬람의 색채가 강한 지역이었고, 그러한 색채는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여 쿠바 아바나에도 적용되었다. 구 아바나의 조밀한 격자와 거리체계, 경계벽(medianería)을 공유하는 건물들, 내향적인 건축양식과 중정(안마당)은 고온다습한 카리브해 섬 지역의 기후가 고려되기보다는 16세기 스페인 남부, 고온 건조한 기후의 안달루시아 도시 및 건축 문화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Dania Gonzalez Couret 2013, 800-811; A. Tablada *et al.* 2009, 1947).

3. 자연적 한계와 도시 확장

1600년대 이미 형성된 아바나의 격자는 그 이후로도 아주 약간의 수정만 있었다. 구 아바나의 제한적인 토지 위에서 격자의 병합과 분할 및 정리가 일어났다. 격자보다는 격자 내에서 필지를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변화가 있었다. 아바나 만에 위치한 지형 특성상, 아바나의 확장은 방벽을 넘어서 남쪽과 서쪽으로만 가능하였다. 지형상 한계가 있는 구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새롭게 조성될 수 있었던 지역은 아바나 만에 접한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1700년대 후반 이 지역에는 구 아바나의 좁은 까예와 대비되는 공공 공간인 아베니다와 알라메다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좁은 까예가 통로였다면 아바나 만에 들어선 이 새로운 길은 가로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넓어서 바람이 통하는 산책길이었다.

한편 구 아바나 서쪽으로는 방벽 너머로 지금의 빠세오 델 빠라도(Paseo del

Prado)가 만들어지고 이후 더욱 서쪽으로 도시영역이 확장되었다. 도시 확장은 해안가인 말레콘 지역에서 시작하여 좀 더 내륙의 센트로 아바나(Centro Habana)로 확대되었다. 이 확장에서 주요 역할을 한 도로는 말레콘과 평행하게 달리는 산하(Zanja)와 아베니다 살바도르 아옌데(Avenida Salvador Allende, 현재의 카를로스 3세 아베니다 Avenida de Carlos III)였다. 방벽 너머 도시 확장은 남서쪽으로도 뻗어나간 깔사다를 통해서도 더욱 진행되었다. 1800년대 초 크리오요(Criollo) 귀족들은 아바나 확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깔사다 델 세로(Calzada del Cerro)를 따라 남서부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18~19세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좁은 까예 체계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넓은 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바나 도시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거리는 경제적 부가 축적되면서 군사적 퍼레이드 등을 위한 과시적인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때까지 아바나 거리 역사에서 없었던 공공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IV. 구 아바나 격자망과 거리체계의 변화

1. 격자의 형태와 변화

1) 격자의 형성

구 아바나의 경우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삼각형 모양의 격자가 있다. 구 아바나 지역 격자망의 크기는 규모가 큰 것은 $78\text{m} \times 153\text{m}$ 또는 $70\text{m} \times 162\text{m}$, 중간 크기는 $73\text{m} \times 83\text{m}$ 또는 $79\text{m} \times 84\text{m}$, 그리고 작게는 $58\text{m} \times 62\text{m}$ 또는 $50\text{m} \times 61\text{m}$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격자는 다양한 크기로 토지를 판매하면서 연속적인 분리의 결과로 나타났다. 먼저 도시 방벽 내에서 나타났고 방벽이 헐리면서 구 아바나 바깥으로 확장되었다(Plan Maestro 2011a, 4-5). 깔사다로 확장된 남서쪽지역은 물론 서쪽인 센트로 아바나, 베다도(Vedado), 미라마르(Miramar) 지역도 격자로 구성되어 있다.

식민 초기인 16세기부터 스페인 왕실의 권한을 위임받은 쿠바 의회(Cuban ayuntamientos)가 토지사용권을 부여했다. 그로부터 175년 동안 쿠바 의회는

쿠바 초기 정착자와 그 후손들에게 막대한 토지를 나눠주었다. 이러한 땅을 제외한 여건이 좋지 않은 토지는 왕실 소유(realengos)로 남아 있었다. 1729년 스페인 왕실은 쿠바 의회의 토지분배 권한을 취소하고 스페인의 토지판매부(Junta de Venta y Composicion de Tierras)에서 직접 쿠바 섬의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대리자를 보내 관리하였다(Johnson, S. 1997, 185).

아바나에서 첫 번째 도시 공간이기도 한 아르마스 광장은 광장 서쪽 한 면에 자리한 빨라시오 데 로스 까삐따네스 헤네랄레스(Palacio de los Capitanes Generales)와 광장의 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요새 까스띠요 데 라 레알 푸에르사(Castillo de la Real Fuerza)의 인근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아르마스 광장은 아바나에서 오래된 광장으로 그 역사적 시작은 1519년이다. 그 당시 광장 이름은 교회광장(Plaza de la Iglesia)이었다. 중세 유럽의 요새 광장과 유사하여 광장의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광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도시에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아바나의 아르마스 광장은 북쪽에 위치한 레알 푸에르사 요새와 함께 도시 방어 및 식민영토에서의 도시 행정을 수행하는 공간이었다. 이 공간은 초기에는 군사 활동 공간으로 이용되다가 차츰 도시 및 종교 활동 공간으로 쓰임이 확대되었다.

그림 1의 (1)은 1573년에 작성된 지도로 아바나의 형성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새는 까스띠요 데 라 레알 푸에르사를 나타낸 것이고 그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세이바 나무(ceiba)가 선 자리는 스페인의 아바나 점령 후 첫 미사를 지낸 곳으로 나중에 이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교회(El Templete, 1827)를 세웠다.

1603년 크리스토팔 데 로다드(Cristóbal de Rodad)에 의해 아바나 도시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그 당시 계획은 군사적 목적을 가진 도시계획이었다. 이는 나중에 아바나를 봉쇄하는 도시 방벽의 초안이 된다(Guadalupe Garcia 2016, 42). 1603년 아바나의 통행로가 처음으로 정비되고, 건물의 정면이 가지런히 늘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점차적으로 밀집도가 높은 도시 구획, 마름모형의 부지,



(1) 1573년, 아바나의 도시 초기 모습
오른쪽 상단 요새는 까스티요 데 라 레알 푸에르사(Castillo de la Real Fuerza)



(2) 1691년, 후안 데 시스카라(Juan de Ciscara)가 그린 아바나 내 교구의 경계(la demarcación en parroquias)



(4) 2011년, 격자의 규칙성(Forma de las Manzanas)
* 색이 짙을수록 규칙성이 높음



(3) 1853년, 주택 수를 표시한 아바나 계획지도(Plano Pintoresco de la Habana con los numeros de las casas)

출처: (1), (2) Archivo General de Indias, Sevilla, Spain

(3) Museo de la Ciudad. Habana (4) Plan Maestro 2011d, p. 4

〈그림 1〉 시기별 구 아바나 격자 변화

그리고 좁은 길이 만들어진다(Plan Maestro 2011b, 1). 17세기에 이미 아바나의 대표적인 광장인 아르마스 광장, 성당 광장, 구 광장, 산 프란시스코 광장이 만들어졌고, 작은 광장들도 잇따라 만들어져서 다중심적인 도시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1674년 그 당시 아바나 도시지역을 둘러싼 방벽을 짓기 시작했고 이 방벽은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넘은 1797년에 완성되었다. 이 도시 방벽 공사 기간에 도시는 이미 방벽을 넘어 확장되어갔다. 아바나의 과거 도시 방벽이 있었던 방벽 내 면적은 143ha(1.43km²)으나 방벽 공사 중이었던 1700년대 중반 그 당시 아바나 도시지역의 면적은 151ha(1.51km²)로 확장되었다(Mario Coyula 2003, 3).

그림 1의 (2)는 1691년 후안 데 시스까라(Juan de Ciscara)가 교구의 경계(la demarcación en parroquias)를 나타내기 위해 작성한 아바나 지도이다. 이 지도는 인디아스 법에 부합되는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아바나는 이미 1600년대 후반에 구성된 이 격자망에 제약을 받았으며, 이후 도시개발에서도 이해관계 충돌로 협의와 수용이 필요할 때조차 이러한 제한된 격자 내에서 수정해야 했다(Roberto B. Rodriguez 2009, 1-2). 건물은 경계벽 공유체계가 적용되었고 건물 내부의 안마당을 기본요소로 하였다.

18~19세기에 아바나는 도시지역을 둘러싼 방벽을 넘어 서쪽과 남서쪽으로 도시가 확장되었다(그림 1의 (3)). 결국 1863년 도시 방벽을 아예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후 방벽 바로 바깥쪽은 수십 년 동안 띠 모양으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지역의 특징은 큰 건물이 하나의 격자(manzana)를 통째로 점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예로는 팰라시오 발보아(Palacio Balboa), 만사나 데 고메스(Manzana de Gómez)를 들 수 있다(Plan Maestro 2011c, 1-2). 그림 1의 (4)는 2011년에 작성된 지도로 격자의 규칙성(Forma de las Manzanas)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도에서 색이 짙을수록 규칙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2) 격자의 구체적 변화: 1691~1853년

1691년, 1853년, 그리고 2011년 지도에 나타난 도시 방벽 안 구 아바나 지역의 격자를 비교해보면 그 수는 대략 180여 개로 거의 변화가 없다.

1691년 지도(그림1의 (2))에서 볼 수 있는 격자망은 그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전체적인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그림 1의 (3)은 1853년 당시 아바나 계획도로서 각 격자에 있는 숫자는 이미 있거나 계획된 주택 수를 나타낸다. 이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의 구 아바나 구역을 도시 방벽이 감싸고 있다. 방벽 너머로 남서 방향으로 뻗은 비교적 넓은 길인 깔사다 델 몬떼(Calzada del Monte)가 있으며, 이 길은 계속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깔사다 델 세로로 연결된다. 깔사다 델 세로는 구 아바나에서 사람들이 이주해간 주요 경로 중 하나이다. 방벽을 넘어서 뻗어 나간 깔사다 델 몬떼 주변에도 격자망이 보인다. 또한 구 아바나 서쪽인 지금의 센트로 아바나 지역도 격자로 계획되어 있다.

1691년 지도와 1853년 지도의 구 아바나 격자망을 비교해보면 약 160년 동안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구 아바나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격자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변화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그림 2의 (1)).

첫째, 주로 도시 방벽에 접한 격자의 합병이다. 1691년에는 두 개의 분리된 격자이었던 것이 1853년 지도에는 합병되어 있다. 그림 2의 (1)에서 두 개의 격자가 하나의 격자로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다.



(1) 격자의 변화(사각형으로 표시)와 아바나 만 변화 지역(빗금으로 표시) (2) 아바나의 까스띠요 데 라 푸에르사 재건축 계획 (Castillo de la Fuerza de la Habana, 1773년)

출처: (1) Archivo General de Indias, Sevilla, Spain 저자 수정.

(2) Archivo General de Indias, Sevilla, Spain

〈그림 2〉 1691~1853년 사이 격자의 변화

둘째, 이전에 형성된 격자의 분할이다. 그림 2의 (1)에서 하나의 격자가 두 개 또는 네 개의 격자로 분할된 것을 볼 수 있다. 1691년 지도와 1853년 지도를 비교해본 결과 하나의 격자가 네 개의 격자로 분할된 곳은 두 곳이었으며, 하나의 격자가 두 개의 격자로 분할된 곳은 한 곳이었다.

셋째, 아바나 만 인근에 접한 구 아바나에서 일어난 토지이용 세분화 및 정리이다. 그림 2의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바나 만 부근의 일부 간척을 통해 육지가 확장되고 새로운 거리가 들어섰다(빛금으로 표시). 이 지역은 식민시기 초기부터 자주 침수되었던 곳이다. 격자의 변화에 대한 관련 기록은 1773년 라몬 이그나시오 데 욀디(Ramón Ignacio de Yoldi)가 아바나의 까스띠요 데 라 푸에르사(Castillo de la Fuerza)와 그 주변 공원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계획을 묘사한 도시계획(Ordenación Urbanísti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아바나 만 입구인 푸에르사 인근에서 몇몇 건물의 재건축과 해제가 계획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의 (2)). 이와 관련된 거리체계 변화는 170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아바나 만의 아베니다, 알라메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53년 이후 구 아바나 격자망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이미 형성된 격자 내에서의 세부분할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그림 3). 구 아바나 좁은 거리 까에는 격자와 격자 사이에 위치하였고, 격자 위의 건물들은 좁은 거리의 양쪽에 벽을 공유한 채 길게 연결되었다.

격자 안의 건물 밀집도에 따라 몇 가지 점유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유는 전체 면적 대 내부부지



출처: Plan Maestro 2011 내부자료.

〈그림 3〉 구 아바나가 포함된 역사지구의 격자 세분화 모습

〈표 1〉 격자 안의 건물 점유 형태

밀집	구 아바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점유형태로 건물이 부지의 85%를 차지한다. 부지의 15%는 안뜰(patio), 뒷마당, 측면통로 등으로 이용한다.
중간 밀도	이 형태는 건물면적이 부지 면적의 67% 이하를 차지한다. 나머지 비율은 안뜰, 측면과 후면 통로가 차지한다. 도시 방벽 내에서는 예외적인 지역으로 까스띠요 데 라 레알 푸에르사와 같은 군사시설에서 볼 수 있다.
단일 부지	건물면적이 부지의 15%에 해당되며, 도시 방벽 내의 종교적인 건물과 주요 요새에서 볼 수 있다. 도시 방벽 바깥쪽에서는 공공건물이 들어선 구획에서 나타난다.

출처: Plan Maestro 2011d, 4-6.

에 점유된 면적의 비율로 우리나라에서도 건폐율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바나의 경우 건축조례에서 점유율 상한은 85%이다. 남은 15%는 건물의 내부에 안마당 등이 차지한다.

1855년 아바나 법령(Ordenanzas municipales de la ciudad de La Habana)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1861년 건축조례(Ordenanzas de la Construcción)의 전신으로 이후 아바나와 다른 도시에도 적용되었고, 약간의 수정만 거친 채 계속 시행되어 오늘날의 도시를 만들어왔다. 구 아바나를 포함한 역사지구에 대한 새 법령인 라스 누에바스 레굴라시오네스 델 센트로 이스토리코(Las nuevas Regulaciones del Centro Histórico)는 이전 법령의 후속으로 볼 수 있다(Plan Maestro 2011a, 3; Joseph L. Scarpaci *et al.* 2002, 41).

2. 거리의 형태와 도시 확장

1) 거리 시작: 까예

구 아바나의 대부분은 폭 4미터 내외의 좁은 거리인 까예로 이어져 있다. 구 아바나의 변화가인 까예 오비스뽀(Calle Obispo)의 역사는 식민시대 아바나 정착 시점인 15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시 방벽 외부에서 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관문 중 하나가 이 거리였다¹⁾ 수백 년 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나, 1936년에 원래의 이름이었던 오비스뽀(Obispo)로 옛 명칭을 되찾는다. 오비

1) <http://www.lahabana.com/guide/calle-obispo/> (접속일자: 2020-02-27)

스쁘와 평행한 양옆 까예는 오레일리(O'Reilly)와 오브라빠아(Obrapia)이다. 오비스쁘 거리 옆 좌우로 평행하게 달리는 18개의 까예가 있으며, 이 까예와 거의 직각으로 교차하는 10개의 까예가 있다.

아바나 형성 초기에 도시 성장의 주축이 된 또 다른 거리는 까예 아바나(Calle Habana)이다. 구 아바나는 아바나 만 남동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아바나 만 남동부의 까예 오피시오스(Calle Oficios)를 따라 이 도시의 역사적 유산인 산 프란시스코 광장과 그 성당 그리고 공관 건물인 빨라시오 데 로스 까삐따네스 헤네랄레스(Palacio de los Capitanes Generales)가 위치한 아르마스 광장까지 이어진다. 한편 까예 오피시오스와 나란히 위치한 바로 옆 까예 메르까데레스(Mercaderes)는 구 광장(Plaza Vieja)과 성당광장(Plaza de la Catedral)까지 이어진다. 구 아바나 밖의 지역에서 까예의 폭은 좀 더 확장된다.

아바나의 거리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까예, 깔사다, 아베니다, 알라메다, 빠세오로 구분된다. 거리의 구조와 명칭은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스페인과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에서도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거리의 유형 중 가장 좁은 폭의 거리는 까예로 불리고, 빠세오는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폭의 거리를 말한다.

2) 공공 공간(public space)의 시작: 알라메다, 아베니다, 빠세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라틴아메리카에 선형으로 이루어진 공공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기존의 좁은 거리인 까예와는 달리 이 새로운 길은 산책이나 행진 등 행사장소로 이용되었다. 알라메다의 경계에는 구 아바나 까예에서는 볼 수 없는 가로수를 심었다. 기존의 좁은 까예에 비해 넓은 이러한 유형의 거리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접하면서 산책할 수 있었다. 이는 그 이전의 200여 년의 아바나 도시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보다 더 넓은 길을 나타내는 빠세오는 알라메다와 마찬가지로 공공 공간을 나타냈으며 두 용어가 별다른 구분 없이 쓰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폭 6미터 정도의 거리를 일컫는 아베니다의 경우도 때로는 까예와 구분 없이 쓰이기도 했으며 차선과 차선 사이 중앙에 큰 통행로가 있는 거리를 빠세

오라 하지 않고 아베니다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아바나 베다도 지역에 있는 아베니다 데 로스 프레시덴테스(Ave. de los Presidentes)는 일반적인 빠세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쪽 도로의 중앙에 가로수가 조성된 넓은 도로용 통행로가 있다.

1772년 도시 방벽의 바깥쪽으로 대로(boulevard)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알라메다 이사벨 2세(Alameda Isabel II)로 이름이 붙여졌고, 1928년에 리모델링 되었다. 알라메다 이사벨 2세는 후에 빠세오 델 브라도와 빠세오 마르티(Paseo Martí)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빠세오 델 브라도는 1771~1776년에 아바나 만에 만들어진 알라메다 데 빠울라(Alameda de Paula)와 연결되었다. 이 거리는 아바나의 첫 산책길(promenades)이다. 길의 이름은 인근의 산 프란시스코 데 빠울라(San Francisco de Paula) 교회이름을 본 따 빠울라로 명명된 것이었다.²⁾

대 앤티레스제도(Greater Antilles)에서 가장 큰 섬인 쿠바는 18세기 말부터 “세계의 설탕 볼(world’s sugar bowl)”로 성장한다. 당시 쿠바에서 설탕 생산이 증가한 것은 이 섬에 비옥한 토지가 충분했다는 점, 축적된 자본이 있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착취할 수 있었던 노동력 때문이었다. 또한 영국령 아메리카 식민지(British North American)였던 13개의 식민지(Thirteen Colonies)가 독립하면서 그 당시 이례적일 정도로 좋은 경제적·정치적 상황은 쿠바의 설탕 산업 성장을 이끈 동력이 되었다. 1783년 이후 독립전쟁을 통해 아메리카 연방으로 독립한 미국은 영국령 서인도 식민지(British West Indian colonies)로부터 열대의 생산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연한 상업적 기회는 1776년 스페인의 ‘스페인과 인디아스 사이의 자유무역 규정(Reglameto para el comercio libre de España a Indias)’에 의한 경제적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규정에서 산티아고 데 쿠바, 트리니다드, 바타바노(Batabanó)와 같은 도시들은 스페인은 물론 중립적 연합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위임받았다. 게다가 1791년 프랑스령 생도맹그(French

2) <http://www.lahabana.com/guide/6112/> (접속일자: 2020-02-27)

Saint-Domingue)에서 일어난 노예반란으로 인해 열대 생산품을 공급하던 그 지역의 역할은 노예를 쉽게 착취할 수 있었던 쿠바로 옮겨진다. 유럽으로의 쿠바수출품 무역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졌고, 때로는 아메리카의 ‘중간지점’을 통해 이루어졌다. 쿠바의 설탕 무역은 프랑스 혁명(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0) 동안과 나폴레옹 제국 시기(1804~1814/1815)에 점차 안정적으로 굳혀졌다. 쿠바는 설탕과 커피 등 그 당시 엄청난 수요가 있었던 기호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상당한 이익을 봤다(Zanetti, O., and Garcia, A. 1998, 4-5).



〈그림 4〉 아바나 만 새로운 길

이러한 경제적 호황은 사적으로는 웅장한 저택으로 흘러 들어갔고, 공적으로는 도시 공간에 유입되었다. 아르마스 광장은 군사 퍼레이드 공간에서 공관지구로 바뀌었고, 이 인근 아바나 만을 끼고 공공 산책로가 놓였다. 이 거리의 시작은 아바나 만 입구의 까스피요 데 라 punta(Castillo de la Punta) 인근 거리인 아베니다 카를로스 마누엘 데 세스페데스(Ave. Carlos Manuel de Céspedes)에서 시작한다. 그 길은 산 페드로(San Pedro), 아베니다 데 빠울라(Avenida de Paula)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데삼파라도스

(Desamparados)로 이어진다. 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128,000m² 면적의 바다를 메웠다. 이 프로젝트는 그 당시 유럽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을 즐기는 공공 공간을 아바나에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4).

3) 도시 확장의 통로: 깔사다, 아베니다, 파세오

도시가 점차 도시 방벽의 밖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구 아바나의 남서쪽으로 깔사다가 깔렸다. 깔사다는 아바나 확장의 주요 통로가 된 거리로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4~6차선의 도로이다. 1674년과 1797년 사이에 도시 방벽이 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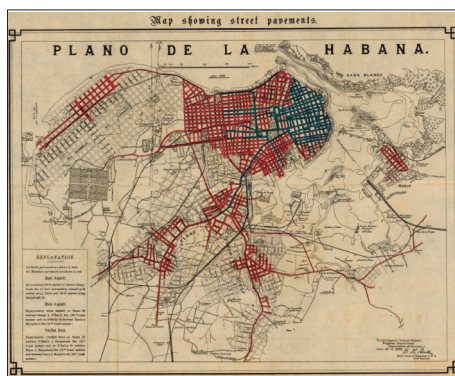
졌지만, 이미 그 방벽이 완성되기도 전에 도시는 방벽 외곽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자유를 얻은 노예를 포함한 빈곤계층은 방벽이 쳐진 도시의 남쪽 끝과 방벽의 남서부 외곽에 거주했다. 도시에 물자를 공급하던 근교의 배후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손가락 모양으로 아바나는 팽창해갔다.

특히 안토니오 마리아 데 라 토레(Antonio Maria de la Torre)의 뿔란 데 엔 산체(Plan de Ensanche, 1817~1819)에서는 방벽 안 도시인 구아바나와 방벽 바깥의 근교를 연결하는 도시 확장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서 그려진 주요 도로로는 깔사다로 신교전주의 양식의 포르띠코(portico)를 가진 주택들이 거리 양쪽에 들어섰다. 당시 이러한 모습은 아바나의 새로운 거리 경관이었다. 왜냐하면 좁은 거리(까예)로 연결된 방벽 안 도시 특성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1830년대 프리오요 귀족들은 아바나 확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깔사다 텔 세로를 따라 남서부에 정착하였다. 이외에도 깔사다 인판타(Calzada Infanta), 10월 10일 깔사다(Calzada 10 de Octubre)는 구아바나 방벽을 넘어 도시가 서부와 남부로 확장하는 통로가 되었다(그림 5의 (1)).



(1) 도시 확장 주요 통로



(2) 아바나 계획 (1899년)

출처: (1) 구글 이미지에 저자 표시

(2)<https://havaspecialperiod.wordpress.com/historycolonial-era>(접속일: 2018-5-20)

〈그림 5〉 도시 확장 통로

아바나 도시의 획기적인 변화는 미겔 데 따콘(Miguel de Tacón, 총독 1834~1838)의 시기에 있었다. 이 시기 아바나의 도시 경관은 넓게 뻗은 거리, 분수와 조각들로 장식된 보행로 등을 갖추게 된다. 아바나는 말레콘(Malecón) 해변에서부터 확장되어, 점차 그 내륙 쪽인 센트로 아바나로 더욱 확장되어 갔다. 그 당시 토지가 방벽 안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새로운 확장 지역인 센트로 아바나에 해안선과 평행한 위치에 두 개의 주요 도로인 산하와 좀 더 내륙 쪽으로 아베니다 살바도르 아엔데가 만들어졌다. 이 역시 1836년 총독 미겔 데 따콘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거리로 까스띠요 델 뵈린시뻬(Castillo del Príncipe)까지 길이 이어진다. 아베니다 살바도르 아엔데의 원래 명칭은 빠세오 데 따콘(Paseo de Tacón)이었지만 이후 스페인의 왕 까를로스 3세(Carlos III)를 기려 명칭이 바뀐다(Alfredo José Estrada *et al.* 2007, 100)(그림 5의 (1)).

1863년 도시 방벽이 무너지고 도시는 더욱 확장되었다. 그림 5의 (2)는 1899년 아바나의 거리 포장(street pavement)을 보여주는 것으로, 벽돌 포장과 쇠석 도로포장을 나타낸 것이다. 구 아바나는 벽돌 포장이 되어 있으며, 센트로 아바나와 구 아바나 남서부와 베다도 지역에 쇠석 도로포장이 집중되어 있다.

3. 식민시기 아바나(1519~1898)의 변화 과정

식민시대 아바나(1519~1898년)를 물리적 구조와 변화로 구분한다면 다음의 네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입지 및 계획 초기(1500년대)’이다. 1519년 지금의 아바나 만에 도시가 자리를 잡고, 까스띠요 레알 푸에르사 요새(1558~1577년)가 들어선다. 아바나에 첫 수도관 사업(1565~1592년)도 이 시기에 있었다. 스페인은 식민도시 건설을 위한 인디아스 법(1573년)을 만들었으나, 이 법이 쿠바섬에 도착하기 전인 1574년 당시 아바나 총독이었던 까세레스는 도시법령(1574)을 만든다. 화재에 취약한 초가지붕 금지조례(1576년)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두 번째 시기는 ‘물리적 형성기(1600~1700년대 중반)’이다. 크리스토팔 데 로다(Cristóbal de Roda)는 그 당시 아바나를 벽으로 봉쇄하는 첫 도시계획 윤

곽(1603년)을 작성했는데 이는 이후 실제 도시 방벽(1674~1797년)의 초안이 되었다. 통행로가 정비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구 아바나는 촘촘한 격자망을 갖추고 좁은 까예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다습한 카리브해 지역의 기후가 고려되었다기보다는 스페인 남부의 건조한 기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쿠바 섬을 총독령(Capitanía General de Cuba)으로 정비하고 아바나에 총독(1607년)을 보냈다. 아바나는 교역 도시로 성장하면서 첫 타바코 공장인 레알 파토리아 데 타바코스(Real Fatoria de Tabacos, 1717년)가 세워졌으며, 1740년에서 1762년 동안 쿠바의 통상을 독점했던 레알 콤파니아 데 코메르시오 데 라 아바나(Real Compañía de Comercio de La Habana, 1740년)가 들어섰다.

세 번째 시기는 ‘공공 공간과 도시 성장의 시기(1700년대 후반~1820년대)’이다. 광장을 중심으로 한 공공 공간은 이전에도 등장했으나, 복잡한 가로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도로 체계의 등장은 이 시기의 특징이다. 자주 침수되던 지역을 정비하여 아바나 만에 알라메다 데 빠울라(1771~1776년)가 만들어지고 도시 방벽 바깥쪽으로는 대로인 알라메다 이사벨 2세(1772년)가 만들어졌다. 안토니오 마리아 데 라 토레의 도시계획인 빨란 데 엔산체(1817~1819년)는 그 당시 도시 성장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네 번째 시기는 ‘본격적인 공공사업과 도시 확장의 시기(1830년대~1989년)’이다. 당시 총독이었던 미겔 데 파곤(1834~1838년)이 실시한 공공사업에 따라 아바나는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말레콘에서부터 그 내륙인 센트로 아바나 지역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그 당시 만들어진 주요 도로인 산하와 아베니다 살바도르 아엔데를 통해 그 당시 도시가 어떻게 확대되어 나갔는지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사업은 당시 사탕수수 무역에서 나온 재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다. 또한 ‘금지된 구역’을 의미하던 베다도에 대한 접근 제한이 없어지면서 도시는 더욱 커졌다(1858년). 이 지역은 밀집한 구 아바나에 비해 자연 지역이 넓었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아바나의 기후에 좀 더 적응하여 격자 내 건물과 도로를 배치할 수 있었다(장수환 2017. 233).

V. 연구의 함의와 향후 방향

본 논문에서는 아바나의 식민시대 도시 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시 형태 연구에서 주요 연구대상인 격자와 거리체계를 통해 식민시대 아바나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도시연구가 도시의 역사적 배경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도시 격자와 거리의 형성 및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아바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은 스페인의 인디아스 법에 의해 도시 형성 시기부터 영향을 받았다. 물론 그 법이 스페인령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정주지들이 형성되고 있었다. 인디아스 법이 도착하기 전에 이 당시 확장되던 정주지를 정비하고자 아바나의 총독이었던 까세레스가 도시 계획법(Cáceres Ordinances, 1574)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 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추후 연구 논의로 남겨둔다. 또한 스페인 본국의 도시와 스페인령 아메리카 도시의 구조상 차이점과 변화에 대한 연대기적 비교도 향후 식민시대 도시연구에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밀집한 격자와 좁은 거리로 인해 새로운 도시계획이 쉽지 않은 구도심에서의 공공성과 환경 문제는 향후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바르셀로나에서는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기존 격자 9개를 묶어 하나의 수페르만사나(supermanzana)를 구성하였고, 이 안에 녹지 공간 등 공공 공간을 배치하고 도보 친화적인 구도심을 만들었다.

더 좋은 도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기에나 공통의 과제이다. 마치 밀집한 까예로 구성된 구 아바나에서 17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아바나 만에 알라메다라는 공공 공간을 처음 만든 것처럼 말이다. 과거의 공간에서 공공성과 환경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 연구는 과거를 접하고 있는 현재에, 그리고 현재를 과거로 접할 미래의 도시계획에서 대두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희순(2016), 「스페인의 식민지배 거점으로서 아바나의 형성과 성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 19, No. 3, pp. 113-129.
- 이연경(2014), 「근대적 도시가로환경의 형성 - 1896년~1939년 종로 1, 2가의 변화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Vol. 11, pp. 9-10.
- 장수환 외(2017), 「아바나 열환경 평가와 건축요소 변화」, 중남미연구, Vol. 36, No. 2, pp. 213-242.
- Colantonio, A. and R.B. Potter(2006), “City profile: Havana”, *Cities*, Vol. 23, No. 1, pp. 63-78.
- Currel, Alessandra and Helena Coch Roura(2011), “Solar access in densely built urban environments”, Magali Bodart, Arnaud Evrard(ed.), *PLEA 2011-27th Conference on Passive and Low Energy Architecture*, Louvain-la-Neuve, Belgium, 13-15 July 2011.
- Estrada, Alfredo José (2007), *Havana: Autobiography of a C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 Tablada, A.(2009), “On natural ventilation and thermal comfort in compact urban environments,” *Building and Environment*, Vol. 44, Issue 9, pp. 1943-1958.
- Azizi, Mohamad Mehdi and Mojtaba Arasteh(2011), “Explanation of structural density urban sprawl based on a case study in Yazd”, *Journal of City Identity*, No. 8, pp. 5-15.
- Couret, Dania Gonzalez *et al.*(2013), “Influence of architectural design on indoor environment in apartment buildings in Havana”, *Renewable Energy*, Vol. 50, pp. 800-811.
- Clark, Kenneth N. *et al.*(1995), “The Geography of Power in South America: Divergent Patterns of Domination in Spanish and Portuguese Colonies”, *ACSA EUROPEAN CONFERENCE*, pp. 111-116.
- Garcia, Guadalupe(2016), *Beyond the Walled City: Colonial Exclusion in Havana*,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rren, James(2015), “Developing an equitable and sustainable mobility stratege for Havana”, *Cities*, No. 45, pp. 133-141.
- Johnson, S.(1997), “La Guerra Contra los Habitantes de los Arrabales:

- Changing Patterns of Land Use and Land Tenancy in and around Havana, 1763-1800”,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s*, 77(2), pp. 181-209.
- Hanson, Julianne(2000), “Urban transformations: a history of design ideas”, *URBAN DESIGN International*, No. 5, pp. 97-122.
- Hernández, Pérez and Julio César(2011), “A Vision for the Future of Havana”, *Journal of Biourbanism I*, No. 1 , pp. 93-102.
- Lefebvre, H.(1991), *Production of Space*, Nicholson-Smith, D.(trans.) Oxford: Blackwell.
- Sosa, María Belén *et al.*(2017), “Urban grid forms as a strategy for reducing heat island effects in arid cities”,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No. 32, pp. 547-556.
- Coyula, Mario and Jill Hamberg(2003), “The case of Havana, Cuba. UNDERSTANDING SLUMS: Case Studies for the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2003”, *UN-HABITAT*,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Plan Maestro(2011a), *Plan Maestro-oficina del Historiador de la Ciudad de la Habana*, Habana: Plan Maestro.
- (2011b), *Regulaciones CAPÍTULO 1. DESCRIPCIÓN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IUDAD DE LA HABANA*, Habana: Oficina del historiador de la ciudad de la Habana. <http://www.planmaestro.ohc.cu/recursos/papel/documentos/regulaciones.pdf>
- (2011c), *Regulaciones CAPÍTULO 1. DESCRIPCIÓN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IUDAD DE LA HABANA*, Habana: Oficina del historiador de la ciudad de la Habana. <http://www.planmaestro.ohc.cu/recursos/papel/documentos/regulaciones.pdf>
- (2011d), *Cuadernos de cultura urbana Regulaciones Urbanísticas Vol.1*, Habana: Oficina del Historiador de la Ciudad de La Habana.
- Scarpaci, Joseph L., Roberto Segre and Mario Coyula(2002), *Havana: Two Faces of the Antillean Metropolis*,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Rodriguez, Roberto B.(2009), “The law of Indies as a foundation of urban design in the Americas”, *ARCC 2009 – Leadership in Architectural Research, between academia and the profession*, San Antonio, TX, 15-18.

Zanetti, O. and A. Garcia(1998), *Sugar and Railroads, A Cuban History, 1837-1959*,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http://www.lahabana.com/guide/calle-obispo/>(접속일자: 2020-02-27)

<http://www.lahabana.com/guide/6112/>(접속일자: 2020-02-27)

<https://havanaspecialperiod.wordpress.com/history/colonial-era/>(접속일: 2018-5-20)

장 수 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1002호
suhwanjang@hanmai.net

논문투고일: 2020년 3월 9일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21일

Transition process in Urban Grids and Street Systems Focused on Old Havana

Su Hwan J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u Hwan, Jang(2020), "Transition process in Urban Grids and Street Systems Focused on Old Havana",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1(1), 115-141

140

141

Abstract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urban formation and transition of Havana during the colonial era. In the meantime, domestic urban research on Latin America has focused on the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This study interested in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 of Havana, which makes it different from existing Latin American urb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process of grid and street system around Old Havana from late 17th century to the late 19th century. For the grid system, the transition can be divided into merger, division of the existing grid and the expansion or emergence of public space around the Havana Bay. In the case of the street system, the area of study covers not only the Old Havana but also extended areas beyond the city wall after the 18th century.

Until alameda, avenida, calzada and paseo were newly created as promenade and public space in the 18th century, the main street system of Havana was composed of just narrow 'calle' for two hundreds years since 1519 when Havana was placed.

The case study of Havana show us that urban system layered through times influences the daily life. It also tells us why in urban morphology, it is needed to consider deeply on not only the present but also the future.

Key words Leyes de Indias, Old Havana, Urban Morphology, Grid, Street